

#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적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36호

Jeff Pippenger  
2026-01-27

## 제36번

제임스 화이트가 1844년 10월 22일 이후 밀러파의 흠여짐으로 규정한 'bustle' 속에서, 윌리엄 밀러는 1847년에 꿈을 꾸었고, 그로부터 2년 후 그는 안식에 들었다.

만일 윌리엄 밀러가 셋째 기별의 빛을 볼 수 있었다면, 그에게 어둡고 불가해하게 보였던 많은 것들이 해명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지극하다고 표명하였고,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마음은 진리를 향해 기울곤 하였으나, 형제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그것을 반대하였다. 예수의 오심을 선포하는 일에 그와 나란히 서 있었던 자들과 과연 결별할 수 있었겠는가? 그는 그들이 자신을 결코 그릇된 길로 이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그가 사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이도록 허락하시고, 그를 무덤에 감추어, 그를 진리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지게 하던 자들로부터 숨기셨다.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 할 즈음에 잘못을 범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윌리엄 밀러가 하늘 가나안에 곧 들어가려 할 때, 자신의 영향력이 진리에 대항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잘못을 범하였음을 보았다. 다른 이들이 그를 이와 같이 이끌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종의 귀한 티끌을 천사들이 지키고 있으며, 그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나오리라.

### 견고한 토대

나는 잘 경계하며 굳게 선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은 교회의 확립된 신앙을 동요시키려는 자들에게 일절 용납을 베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며 호의로 바라보시는 것이 보였다. 내게 세 층계, 곧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보여졌다. 나를 동반한 천사가 말하였다. "이 기별들 가운데 석재 하나를 옮기거나 못 하나를 흔드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에 대한 참된 이해는 사활적 중요성을 지닌다. 영혼들의 운명이 그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달려 있다." 나는 다시금 이 기별들을 통하여 인도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체험을 얼마나 값비싸게 얻었는지를 보았다. 그것은 많은 고난과 심한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들을 견고하고 움직일 수 없는 평대 위에 세우셨다. 나는 몇몇 사람이 그 평대에 다가와 그 기초를 살펴보는 것을 보았다. 어떤 이들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그 위에 올라섰다. 다른 이들은 그 기초에 흠을 잡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개선이 이루어지면 평대가 더욱 완전해지고 백성들도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바랐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살펴보겠다며 평대에서 내려가 그것이 잘못 놓였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나는 거의 모든 이들이 그 평대 위에 굳게 서서, 내려간 자들에게 그들의 불평을 그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건축자이시며, 그들이 그분을 거슬러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들을 견고한 평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회상하여 이야기하고, 한마음으로 눈을 하늘로 들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불평하며 평대를 떠났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겸손한 얼굴로 다시 그 위에 올라섰다. 초기 문집, 258.

## 밀러의 경이로운 일들

윌리엄 밀러의 "경이로운 사역"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대(臺)"였던 "견고한 기초"로 이어졌다. "흔들리지 않는 대(臺)"의 "기초"와, 1849년 밀러의 사후에 제기된 "대(臺)"와 "기초" 모두에 대한 이후의 공격이 그의 꿈에서 확인된다.

윌리엄 밀러는 재림주의의 토대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는 또한 1798년부터 1863년까지의 밀러주의 역사의 상징이다.

그는 또한 1798년부터 1844년에 이르기까지의 밀러주의 운동사의 상징이다.

그는 또한 1798년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세 천사의 역사의 상징이다.

그는 1798년부터 1844년까지의 46년으로 표상된다.

그는 2,520 및 2,300과의 관련에서 "220"이라는 수로 표상된다.

그는 '일곱 때', 즉 2,520으로 상징된다.

그는 2,300에 의해 표상된다.

밀러의 두 꿈은 다니엘서 제2장과 제4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의 두 꿈에 의해 예표되었다.

1798이라는 기간은 느부갓네살로 시작되어 1863년에 벨사살로 종결된다.

1798년부터 일요일 준수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느부갓네살로 시작하여 벨사살로 끝을 맺는다.

그는 밀러파 역사의 상징으로서, 2,520의 알파적 발견과 2,300의 오메가적 발견 사이에서 발견된 진리들을 대표하는 기초를 상징한다. 윌리엄 밀러의 꿈을 논평하면서, 제임스 화이트는 그 '열쇠'가 밀러의 성경 연구 방법임을 밝혔다. 그 방법론은 밀러의 어깨 위에 놓인 다윗의 열쇠로, 이는 그가 1844년 10월 22일 이사야서 22장 22절이 성취될 때 종결되는 2,300년의 예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 봉인이 풀리기 시작한 진리들은 하박국의 표들에 관한 95편의 발표에서 이미 규명된 진리들이며, 이제 그 진리들은 새로운 "진리"의 틀 안에 자리매김되고 있다.

2023년 7월에 있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부르심은, 2020년 7월 18일의 선포에 대하여 회개할 자들에게 통곡과 애통이 필요함을 밝혔다. 슬기로운 처녀들에 속할 자들은 다니엘 9장의 기도와 일치하여 회개해야 했는데, 그 기도는 곧 자신들이 흠어졌음을 인정하는 자들의 기도이며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것이다.

밀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렇듯 나의 크나큰 상실과 책임을 인하여 울며 애통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내게 도움을 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즉시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방으로 들어오자, 방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나갔다. 그리고 그는 손에 빗자루를 든 채 창문을 열고, 방 안의 먼지와 쓰레기를 쓸어내기 시작하였다.”

“도움”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열렸던 문은 밀러의 마음이었다. 라오디게아에 대한 참 증인으로서 예수께서는 들어오심을 청하시며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 문이 열렸을 때 분리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문이 열릴 때 “창들”도 열렸고, 그 “창들”은 하늘의 창들이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신부가 자신을 준비한 직후 주께서 그분의 백마의 군대를 일으키실 때 하늘의 창들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 군대는 거센 동풍의 기별에 응답하여 일어서는 에스겔의 군대이다. 그 군대는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가 성취될 때 투쟁하는 교회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변화한, 곧 승리하는 교회이다. 그 분리는 또한 라오디게아의 경험에서 빌라델비아의 경험으로 바뀌는 것으로도 표상된다. 밀러는 마음을 열어 참된 증인께서 들어오시게 하였고, 그분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시면서 그분의 백마의 군대를 살려 일으키셨다.

2023년 12월 31일, 그 먼지술을 든 사람이 사람들이 떠난 뒤 방 안으로 들어와, 오류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하박국의 판들에 담긴 오래된 진리들을 새로운 진리의 체계 안에 배치하였다.

구주께서 오신 것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는 그분 자신이 이 대표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모든 진리는 그분에게서 나왔다. 그러나 이 값진 보석들은 거짓된 장식들에 끼워져 있었다. 그 귀한 빛은 오류를 섬기도록 이용되어 왔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오류의 장식들에서 떼어 내어 진리의 틀 속에 다시 놓이기를 원하셨다. 이 일은 오직 신성한 손만이 이루실 수 있었다. 오류와의 연결로 인해 진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의 목적을 섬기는 데 쓰여 왔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도록 제자리에 놓으시기 위해 오셨다. 시대의 소망, 287.

2024년에 초기에 가르쳐진 진리들 가운데 하나는 2020년 7월 18일의 실망에 대한 설명이었다. ‘선에 선을 더하는’ 원칙에 따라, 각 개혁선의 최초의 실망들은 2020년 7월 18일을 열 처녀의 비유에서의 주요 이정표로 지목하고 있음이 인식되었다. 그 실망이라는 주제가 성소의 진리를 여는 ‘열쇠’가 되었고, 반면 1844년의 대실망에서는 성소가 그 실망의 의미를 풀어 주는 ‘열쇠’였다.

흙을 쓸어내는 이, 곧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2023년에 한밤중 외침의 기별의 봉인을 풀기 시작하셨다. 우리는 이제 밀러의 꿈에서, 그분께서 더 큰 보석함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시고 태양보다 열 배 더 밝게 빛날 진리들을 그 안에 던져 넣고 계신 바로 그 지점에 이르렀다. 그 보석들 가운데 하나는 예언적 서사 속에서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관한 계시이다.

예언의 봉인이 풀릴 때,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옛 진리들을 취하여 '진리'의 세 단계라는 새로운 체계 속에 배치하신다. 그 체계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결속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는 자신의 말씀의 모든 요소를 주재하셨다. 팔모니로서 그는 수학의 모든 측면을 설계하셨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때, 제삼 시에 그분은 자신을 팔모니라고 소개하시며 "예언적 프랙탈"을 강조하신다. 예언의 주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마지막 계시들 가운데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에 의해 표상된 바와 같은 "예언적 프랙탈"에 대한 강조이다. 이는 1.618의 상징으로, 자연계에서는 "황금비"라 불리지만, 팔모니는 이를 "예언적 프랙탈"이라 부른다.

우리는 27에서 34까지의 거룩한 주간 안에 위치한 예언적 프랙탈들을 이제 막 식별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요엘서로 향하는 길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밀러의 꿈에 대한 우리의 고찰에 예언적 프랙탈에 대한 강조를 부가할 필요가 있었다.

밀러가 사람들을 "와서 보라"고 부른 일과, "먼지 빗자루를 든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밀러에게 "와서 보라"고 부르신 일을 포괄하는 기간은 1798년부터 일요일 준수령에 이르기까지이며, 그 전체 역사 안에는 1798년부터 1863년까지의 기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프랙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9/11부터 일요일 준수령에 이르는 또 하나의 프랙탈이 있으며, 2023년부터 일요일 준수령에 이르는 또 다른 프랙탈이 있다.

밀러가 분주함 속에서 눈을 감았을 때, 그는 주께서 그 사역을 마치고자 시도하셨으나 헛되이 돌아가던 1849년의 역사를 표상하였다. 그는 2023년에 부활한다. 이는 그가 모세와 함께 거리에서 죽임을 당한 엘리야이기 때문이다. 그는 1849년에 죽었고, 이어 2020년 7월 18일에 다시 죽었다.

그의 꿈은 1847년에 주어졌고, 그 후 주께서 그의 손을 두 번째로 펴시고 1850년 도표를 발표하셨다. 일백사십사천의 역사 가운데 주께서 그의 손을 두 번째로 펴실 때, 밀러가 부활한다.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의 흠어짐의 기점은 이사야서에서 제시된다.

이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라. 또 육십오 년 안에 에브라임은 패망하여 다시는 한 백성이 되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이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8, 9.

예언은 기원전 742년에 주어졌고, 19년 후인 기원전 723년에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흠어졌으며, 그로부터 다시 46년 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흠어졌다. 이 세 연도는 19년의 기간과 그 뒤를 잇는 46년의 기간을 나타낸다. 그 두 예언이 각각 1798년과 1844년에 종결되었을 때, 처음의 기원전 742년부터 기원전 723년까지의 19년은 알파의 19년이었고, 그것은 1844년부터 1863년까지의 오메가의 19년을 대표하였다.

밀러는 오메가 19년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사망하였고, 그로부터 7년 뒤 히람 에드슨의 '일곱 때'에 관한 논설들이 출판되었다. 다시 7년 후에는 '일곱 때'가 거부되었다. 1856년은 1863년의 주일법에 앞서 있을 인침으로 예정되었으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셋째 천사는 1844년, 1888년, 그리고 9:11 때 나타났다. 화이트 자매는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져 내릴 때 요한계시록 18장 처음 세 절이 성취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다른 한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가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귀신들의 거처가 되었고, 모든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요,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감옥이 되었도다. 이는 모든 민족이 그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풍성함으로 부요하게 되었음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 백성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는 그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미쳤고,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를 기억하셨음이라. 그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 주고,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갑절로 갚아 주라. 그가 채운 잔에 그에게 갑절로 채워 주라. 그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한 만큼, 그만큼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의 재앙들이 임하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기근이요, 그는 불로 온전히 사름을 당하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라.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의 타는 연기를 볼 때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로다, 화로다, 큰 성 바벨론아, 견고한 성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라. 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다시는 아무도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함이라. 곧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색과 비단과 홍색 옷과 모든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과 지극히 귀한 나무와 놋과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들이요, 계피와 향품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밀가루와 밀과 가축과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네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고, 모든 살진 것과 화려한 것들이 네게서 떠났으니, 다시는 그것들을 결코 찾지 못하리라. 이 물건들로 말미암아 부요해진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로다, 화로다, 그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색과 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하였도다. 이 큰 부가 한 시간에 황폐하게 되었도다 하리라. 모든 선장과 배에 있는 모든 무리와 선원들과 바다로 무역하는 모든 자들이 멀리 서서, 그의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자기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로다, 화로다, 그 큰 성이여, 그 화려함으로 인하여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되었거늘, 한 시간에 그가 황폐하게 되었도다 하리라. 하늘아,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여 너희를 위하여 원수를 갚으셨음이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이같이 큰 힘으로 그 큰 성 바벨론이

내던져져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네 안에서 다시는 거문고 타는 자나 음악하는 자나 피리 부는 자나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어떠한 기술을 가진 장인이라도 다시는 네 안에서 발견되지 아니할 것이며, 맷돌 소리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등불의 빛도 다시는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상인들이 땅의 큰 자들이었고, 네 주술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음이라. 또 그 안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발견되었음이라.

제1절-또 이 일 후에 내가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비추어졌다.

제2절 —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이르되,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고, 모든 더러운 영의 감옥이 되었고,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의 우리가 되었고도다.”

제3절—이는 모든 민족이 그녀의 음행으로 말미암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되었다.

강대한 첫째 천사가 손에 메시지를 들고 강림하였고, 요한은 가서 그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첫째 천사는 그의 영광으로 땅을 밝히는 요한계시록 18장의 그 천사와 동일한 사역을 행한다. 이는 첫째 천사가 알파요 셋째 천사가 오메가이며, 시작이 언제나 끝을 예시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힘센 천사에게 내려와 땅의 거민들에게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경고하라고 명하셨다. 그 천사가 하늘에서 예수의 임재를 떠나자, 지극히 밝고 영광스러운 빛이 그의 앞서 나아갔다. 나는 그의 사명이 그의 영광으로 땅을 밝히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임을 들었다.” Early Writings, 245.

첫째 천사는 요한계시록 18장 1절이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큰 권세를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비추어졌다.

둘째 천사는 요한계시록 18장 2절이다.

그가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고, 모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었으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의 우리가 되었고도다.

셋째 천사는 요한계시록 18장 3절이다.

이는 모든 민족이 그녀의 음행에서 비롯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되었음이라.

일요일 법령 때에 모든 왕들이 그 음녀와 음행하는데, 이는 3절에 예표되어 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이며, 그것이 2절이다. 첫째 천사의 사명은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비추는 것이었고, 그것이 1절이다. 1절은 9/11이다. 2절은 9/11 이래 인류 전체에 걸쳐 진행되어 온 분리의 과정이며, 3절은 일요일 법령이다. 이러한 이유로 9/11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일요일 법령 또한 그러하다. 1-3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9/11은 다가오는 일요일 법령에 대한 경고이며, 4절의 다른 음성은 일요일 법령이다. 요한계시록 18장의 첫째 음성은 다가오는 일요일 법령에 대한 경고이며, 그 경고는 일요일 법령 때에 생생한 현실로 바뀐다.

9/11에서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는, 밀러의 꿈에 나오는 알파의 '와서 보라'에서 오메가의 '와서 보라'에 이르는 기간으로 예표된다. 9/11과 일요일 법령 사이에, 보석들이 방 한가운데 있는 밀러의 탁자 위에 놓이고, 흩어지고 묻히며, 이어서 흠술을 든 사람이 그것들을 회복한다. 1840년에 작은 책을 가지고 내려온 그 천사는 9/11에 내려온 천사를 대표하는 첫째요 알파의 천사였다. 그 천사는, 그 책이 달겠으나 쓰게 되리라고 요한에게 알려지는 제10장에서 식별된다.

요한은 밀러파로 대표되는 첫째 천사의 운동을 표상하였고, 또한 십사만 사천의 운동도 예시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예언자들이 언제나 그러하듯, 말세를 표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그에게는 그 책이 처음에는 달고 그다음에는 쓸 것임이 미리 알려졌다. 밀러파는 이를 미리 알지 못했으나, 십사만 사천은 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첫째 천사의 사자로서의 밀러는 '작은 책'을 먹은 자의 대표적 표상이다. 제분업자로서 그는 밀에서 쭉정이를 가려내고, 곡식을 가루로 빻아 먹을 떡을 만들어야 했다. 그는 그 떡을 방 한가운데에 놓고, 원하는 누구든지 '와서 보라'고 부르며 그것을 나누었다. 그러나 천사의 손에서 그 책을 취한 자의 표상으로서, 요한과 같이 밀러는 첫째 천사의 초기 시기보다 셋째 천사의 후일을 더 가리키고 있다. 그의 꿈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자신의 기별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먼저 알린다. 요한계시록 10장의 첫째 천사는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으나, 1840년의 알파에 상응하는 오메가인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는 손에 책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바로 그것이 밀러가 받은 책—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온 책—이다. 밀러의 '와서 보라'는 9/11이며, 먼지 빗자루를 든 사람의 '와서 보라'는 일요일 법령이다.

알파와 오메가의 "와서 보라" 사이에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있다. 이는 알파가 9/11, 곧 18장 1절이기 때문이며, 또한 2절은 3절에서 결론을 맺는 둘째 천사이고, 그 3절은 일요일 법령이자 오메가의 "와서 보라"이다. 밀러의 꿈에서 둘째 천사와 바벨론의 몰락은 "scatter"라는 단어가 일곱 차례 사용됨으로써 표상되며, 전체 서사는 진리가 오류에 굴복함을 드러낸다.

첫째와 셋째 천사는 각각 1840년 8월 11일과 9/11에 취하여 먹어야 할 기별을 가지고 강림하였다. 이 두 날짜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상응한다.

기초 진리들은 1842년 5월에 공표되었으며, 1843년 선구자 도표는 하박국의 두 표의 알파였다. 2012년에 하박국의 두 표가 간행되어 1842년 5월과 상응하였다.

밀러주의자들은 1844년 4월 19일에 첫 번째 실망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2020년 7월 18일을 예표하였다. 그 시점에 둘째 천사가 임하였고, 그 임함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일치하였다. 그 실망은 첫째 천사의 종결을 표시하였다. 그때 둘째 천사가 임하였고, 열 처녀의 비유에서의 지체기가 시작되었다. 첫째 천사의 역사는 둘째 천사의 역사와 병행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때, 둘째 천사의 임함은 1840년과 9/11에서의 첫째 천사의 임함과 일치한다.

1844년 4월 19일에 예표된 지체의 때가 9/11에 도래하였다. 9/11에 이슬람의 네 바람이 풀려났다가 곧 제지되었다. 요한의 그 네 바람은 이사야의 거친 바람들이며, 예언의 동풍이다. 그리고 인치는 천사는 동방에서 올라온다. 화잇 자매에 따르면, 그가 올라올 때 그는 “불들라, 불들라, 불들라, 불들라” 하고 네 번 외친다. 둘째 천사의 도착으로 시작되는 지체의 때는, 십사만 사천 명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네 바람이 제지되어 있는 것으로 표상된다.

첫 번째 실망 이후, 사무엘 스노는 한밤중 외침의 메시지를 종합하도록 인도되었고, 이로써 2023년 7월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예표하였다.

엑서터 야영회에서, 시험의 기름에 근거한 처녀들의 분리가 언약의 사자의 사역에 부합하여 밀려파 신자들을 정련하고 또한 정결케 하였다. 엑서터 야영회는 인침을 표상하였으니, 이는 그 사업이 그때부터 해일과 같거나 강대한 군대와 같이 전진하여, 1844년 10월 22일에 셋째 천사가 임할 때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 역사의 관건은 분리이다.

둘째 천사는 임할 때 분리의 사역을 수행하며, 첫 실망 때 그렇게 하였고, 그 사역은 10월 22일의 분리로 종결되었다. 두 차례의 분리 사이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다. 둘째 천사의 사역은 기름의 최종 시험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 점진적 분리이다. 기름의 최종 시험은 셋째 천사의 시금석으로 인도한다. 그 시금석은 예수께는 십자가였고, '기름 짜는 틀의 동산'을 의미하는 갯세마네가 십자가의 시금석에 앞섰으며, 처녀들의 기름 시험이 1844년의 닫힌 문에 앞섰다.

심판이 뒤따르는 최종 시험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열 번째 시험이었다. 그들은 그때 광야에서 죽도록 선고되었다. 가데스이든, 갯세마네이든, 혹은 엑서터이든; 심판에 앞서 두 부류가 분리되는 그 최종 시험은, 2023년 이후에 있을 하나의 최종 시험을 가리키며, 그것은 일요일 법령의 닫힌 문 심판에 앞선다. 그 최종 시험은 인침이다. 최후의, 곧 마지막 시험은 최초의 시험을 전제한다.

2023년에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그의 손을 거두심으로 지체하기로 되어 있던 묵시의 봉함을 푸심에 따라, 지체의 때가 끝났다. 그때 사무엘 스노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만일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간을 서로 병행하여 맞추어 놓으면, '그 기별을 취하여 먹으라'는 명령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 기별을 지닌 한 천사의 강림을 가리키게 된다. 그 기초적 기별은 그 기초적 기별이 실패할 때까지 대중에게 제시된다. 그런 다음 셋째 천사가 도래한다. 셋째 천사의 기간은 기원전 742년부터 723년에 이르는 오메가 19년, 곧 그 19년이다.

1844년부터 1863년까지의 기간과 기원전 742년부터 723년까지의 기간은 서로 평행하며, 또한 첫째 천사의 기간과 둘째 천사의 기간과도 평행한다. 그 네 줄기의 예언적 역사는 9/11부터 일요일법령에 이르는 기간과 상응한다. 그 다섯 줄기는 밀러의 알파 "와서 보라"와 그리스도의 오메가 "와서 보라"의 역사이다.

## 사와 칠의 곱

올바르게 이해될 때 레위기 26장은 '일곱 때'를 네 차례에 걸쳐 언급하며, 이 '일곱 때'는 밀러와 그의 기별을 상징한다. 1842년에 밀러의 '일곱 때'에 대한 이해가 화이트 자매가 그것에 관하여 '주님의 손에 의해 인도되었고'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진술한 1843년 도표에 수록되었다. 그로부터 7년 후 밀러는 1849년에 사망하였고, 다시 7년 후 '일곱 때'의 기별이 히람 에드슨에 의해 기록으로 남겨졌으며, 또다시 7년 후 그것이 거절되었다.

1842년에 하박국의 제1표가 간행되었다.

1849년에 1843년 도표에 표기된 "일곱 때"의 알파 사자가 사망한다.

1856년에 1850년 도표에 실린 "일곱 때"의 오메가 전령은 무시된다.

1863년에 하박국의 두 판이 배척되고 1863년 도표가 간행되었다.

첫머리에 신적 도표가 게재되고, 말미에 인간적 도표가 게재된다. 중간에서는 두 사자가 식별되니, 둘째 메시지는 언제나 이중을 지니기 때문이다.

## 첫째 천사

1842년에 하박국의 제1표가 간행되었다.

## 둘째 천사

1849년에 1843년 도표의 연로한 전령이 사망한다.

1856년에 1850년 도표의 새로운 사자가 무시된다.

## 셋째 천사

1863년에 그 메시지는 배척되고 1863년 도표가 간행되었다.

서로 7년씩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된 '일곱 때'의 네 가지 상징을 나타내는 21년의 기간이다. 알파 기별이 발표되고(1842), 알파 사자가 사망하고(1849), 오메가 사자가 무시되고(1856), 오메가 기별이 거절된다(1863). 이는 2012; 2020년 7월 18일; 2023년; 그리고 임박한 일요일 법령을 예표한다. 1849년 밀러의 사망은 2020년 7월 18일과 상응한다. 사자와 기별은 2023년에 부활하였다. 이제 오메가 기별의 봉인이 풀리고 있으며, 그 뒤에는 1863년의 일요일 법령이 뒤따른다.

밀러주의 운동에서는 기별이 확립된 후 기별자가 죽었다. 평행하는 운동에서는 기별이 확립된 후 그 기별이 죽었다. 그 기별은 1856년과 2023년에 부활하였다. 1863은 '배도'로 명명되며, 그 대응인 일요일 법령은 '승리'로 명명된다. 1863의 배도와 일요일 법령의

승리에 앞서, 1856년의 '일곱 때'와 관련된 머릿돌 오메가의 빛에 대한 봉함 해제가 제시되며, 이는 2023년 이래 그래 왔다.

다음 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 윌리엄 밀러: 1782-1849

윌리엄: "의지"와 "투구" - "확고한 보호자", "결연한 수호자", 또는 "의지가 굳센 전사".

제분업자: 제분소를 운영하는 사람, 특히 곡물을 제분하여 가루로 만드는 제분소를 운영하는 사람.

## 굳건한 의지를 지닌 용사

올곧고 정직한 마음을 지닌 한 농부는, 성경의 신적 권위에 관하여 의심에 이르게 되었으나 진리를 알기를 성심으로 갈망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일을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인물이었다. 다른 많은 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윌리엄 밀러는 생애의 이른 시기에 가난과 싸웠고, 그리하여 근면과 자기부인의 중대한 교훈을 배웠다. 그가 출신인 가문의 구성원들은 독립적이며 자유를 사랑하는 정신, 인내력, 그리고 열렬한 애국심으로 특징지어졌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그의 품성에서도 두드러졌다. 그의 아버지는 혁명군의 대위였으며, 그 격동의 시기의 투쟁과 고난 속에서 그가 바친 희생들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밀러의 어린 시절이 곤궁하였던 연유를 찾아볼 수 있다.

그는 건강한 체질을 지니고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보통 이상의 지적 역량을 보여 주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특징은 더욱 두드러졌다. 그의 정신은 활발하고 잘 발달되어 있었으며, 지식에 대한 강렬한 갈망을 지니고 있었다. 비록 대학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으나, 공부를 사랑하는 마음과 세심한 사유 및 엄밀한 비판의 습관이 그를 건전한 판단력과 포괄적 견해를 갖춘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도덕적 성품과 부러움을 살 만한 명성을 지녔으며, 성실과 검소, 박애로 널리 존경을 받았다. 그는 정력과 근면으로 일찍이 생활에 족한 재산을 이루었으나, 그의 학구적 습관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그는 여러 행정 및 군사 직책을 명예롭게 수행하였고, 부와 영예에 이르는 길이 그에게 활짝 열려 있는 듯하였다. 대쟁투, 317.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들과 사탄이 진리의 교리를 왜곡하는 데 사용해 온 쪽정이를 진리의 순전한 알곡에서 분리해 내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는 기도와 정신적 수고 없이는 얻을 수 없다. 사탄과 그와 결탁한 인간 대리자들의 연합은 오류의 쪽정이를 진리의 알곡과 뒤섞으려 애써 왔다. 우리는 감추인 보화를 부지런히 찾고, 인간의 고안물과 신적 명령을 구별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 성령께서는 구속의 계획과 관련된 크고 보배로운 진리를 구하는 자를 도우실 것이다. 나는 모든 이들에게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탐구해야 하며, 이는 그 말씀이 함축하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부가 금맥을 찾아내려고 열의를 다해 땅을 탐사하듯이, 너희도 사탄이 오랫동안 사람에게서 숨기려 한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야 한다. 주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을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개정역.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빛이며, 너희 발에 등불이 되어, 하나님의 도성의 성문까지 이르는 길에서 매 걸음마다 너희를 인도해야 한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탄은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그 위로 행하도록 닦아 놓으신 길을 방해하려고 그토록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너희의 생각을 성경에 들이대어, 너희의 견해를 진리가 그 주위를 돌도록 만드는 중심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탐구의 문턱에서 너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굴복된 마음으로, 자아를 그리스도 안에 감추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자각을 가져야 한다. 이는 그것이 너희 개인의 영원한 안녕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너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는 지침서이다. 너희는 무엇보다도 주의 뜻과 도를 알기를 갈망하여야 한다. 너희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억지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탐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성경을 곡해하여 너희 자신의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선언한다. 너희는 모든 편견을 비워 버리고, 기도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나아와야 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4년 9월 11일.

윌리엄 밀러는 매사추세츠주 피츠필드에서 태어났다. 그의 정규 학교교육은 불과 18개월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는 강한 독서 습관을 통해 독학으로 학문을 닦았다. 또한 일찍이 글쓰기를 시작하여 시를 짓고 일기를 기록하였다. 그의 독서는 그에게 이신론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불신자들의 저술을 접하게 하였다. 그는 20대 후반에 치안판사가 되었고, 1812년 전쟁에 참전하였다. 이 전쟁 동안의 여러 체험은 그의 마음을 인격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였다. 1816년에 이르러 그는 회심하고, 본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성경은 ... 나의 기쁨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나는 한 벼를 찾았다."

그는 예언을 연구하는 가운데 1818년까지 예수께서 '1843년경'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그렇게 하라는 강한 확신과 섭리적 인도를 받은 뒤 1831년에 소규모 모임에서 자신의 연구를 공개적으로 나누기 시작하였다. 1839년에 저명한 편집자 J. V. 하임스를 만난 후,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설교할 길이 열렸다. 많은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와 재림의 기별을 받아들인 다른 이들의 설교는 큰 영향을 미쳐, 최대 10만 명이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믿게 되었다. 엘렌 하몬은 열두 살이던 1840년 3월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그의 설교를 들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밀러 씨는 예언들을 청중들의 마음에 확신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정확성으로 추적해 내려갔습니다. 그는 예언적 기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하였고,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향한 그의 엄숙하고도 강력한 호소와 권면은 균중을 마치 홀린 듯 사로잡아 붙들어 두었습니다." Life Sketches, 20.